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국립나주박물관, '상형토기와 토우장식토기' 특별전

'편안한 사후세계 기원'... '토기'로 살펴보는 장송의례 경주 황남동 유적 토우장식 항아리 등 240여점 선봬

다양한 동물이나 사물을 본떠 만든 상형토기(像形土器), 아이가 장난스레 빚어놓은 것 같은 흙인형 토우(土偶). 토기들은 제작각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며 마치 살아있는 듯 역동적이다. 재치스럽기도, 장난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이 토기들이 왜 삼국시대 무덤에서 발견될까, 그 시대 사람들은 왜 죽은 이를 보내는 가장 슬프고 개인적인 공간에 토기들을 넣었을까.

다양한 토기를 통해 사후세계의 영원한 삶을 기원하는 고대 장송의례를 다룬 전시가 마련됐다.

오는 7월28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

관에서 진행되는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상형토기와 토우장식토기' 특별전이다.

지난해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순회전인 이번 전시에서는 신라·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상형토기를 비롯해 경주 황남동 유적 토우장식 토기 등 240여점을 선보인다. 이중 경주 황남동 유적의 토우장식 토기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이후 이번 순회전에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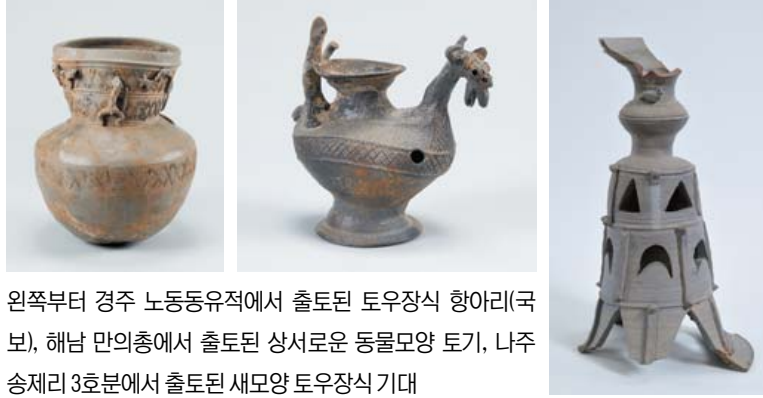
전시는 크게 2개 주제로 구성됐다.

'영원한 삶을 위한 선물, 상형토기'를 주제로 1부에서는 친숙하면서도 상서로움과 권위 등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상형토기를 볼 수 있다.

상형토기는 사람·동물·사물을 본떠 만든 토기로, 술과 같은 액체를 담거나 파를 수 있어 제의용 그릇으로 여겨진다. 죽은 이를 하늘로 안내해주는 새모양 토기와 상서로운 동물모양 토기를 비롯해 머나먼 길 함께 '동행'하는 말모양 토기와 수레바퀴 모양 토기, 사후세계에서도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집모양 토기 등이 전시된다. 사후



경주 황남동 유적에서 출토된 토우장식토기 뚜껑



왼쪽부터 경주 노동동유적에서 출토된 토우장식 항아리(국보), 해남 만의총에서 출토된 상서로운 동물모양 토기, 나주 송제리 3호분에서 출토된 새모양 토우장식 기대

에도 현세의 삶이 이어진다는 계세사상(繼世思想)을 엿볼 수 있다. 2부는 '헤어짐의 이야기, 토우장식 토기'다. 토우장식 토기는 상형토기와 마찬가지로 무덤 속 제의용 그릇이다. 이번 순회전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1928년 일제강점기 경주 황남동 유적에서 수습된 토우장식 토기가 다수 소개되며, 토우에 표현된 당시 장송의례 모습과 일상생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지름 15cm 내외의 작은 토기뚜껑에는 거대한 고대 장송의례가 담겨 있다. 절을 주고 받는 이틀, 춤추고 악기를 부는 사람, 50여 종의 동물 모습, 사람과 동물이 함께 열을 지어 행진하는 모습 등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장송의례 모습

이 토기 곳곳에서 발견된다. 경주 노동동유적에서 출토된 토우장식 항아리(국보)에는 개구리 뒷다리를 문 뱀이 나타나는데, 그 사이사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람 모양이 장식돼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토우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당시 장송의례와 관련해 정형화된 내용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작은 토우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미디어를 접목시켰다.

또 디지털 점자 정보 검색과 촉각 체험물을 설치해 누구나 전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인 '박물관 속 동물 이야기', '큐레이터와의 대화'도 마련돼 있다. /최명진 기자



신라가야지역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

청색조로 펼쳐낸 '시간으로의 여행'

정순이 개인전, 6일까지 우제길미술관

면 분할, 색면 구획을 통해 자신만의 추상언어를 펼쳐내고 있는 정순이 작가의 개인전이 펼쳐진다.

'시간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오는 6일까지 우제길미술관에서 열린다.

20년 만에 붓을 들고 돌아온 작가는 그동안 천착해 온 블루톤의 색감과 조형적 이미지를 독창적인 표현으로 풀어낸 최근작들을 다수 선보인다.

그의 작업에는 추상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드러진다. 그 기저에는 현상계에 존재하는 물상의 이미지와 자신의 내면을 대신하는 추상언어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다. 그의 추상언어는 자신의 작업에서 내용을 암시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작들에서는 화폭에 표현된 물상들이 저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과감하게 표출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저마다의 작품 속에는 작가가 걸어 온 시간과 길, 예술 여정이 담겨 있다. 작품 속 청색조



'시간으로의 여행'

는 때로는 화려한 채색을 동반한 꽃으로 빛을 발하면 서도 깊고 진한 사유를 내비친다. /최명진 기자

'클래식 음악 지식을 놀이로 전하다'

광주시향, 어린이날 '키즈콘서트'

3-5일 광주예당 소극장

놀이와 배움이 하나되는 특별한 순간이 클래식 무대로 펼쳐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키즈콘서트 '플라이 심포니 (Flying Symphony)'를 연다.

공연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과 부지휘자 김영연, 피아니스트 김동준과 정세화가 함께 한다.

첫번째 공연은 동물의 특징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13개의 모음곡인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플루트, 오보에, 비순 등 위트 넘치는 여러 가지 악기로 표현된다. 현악기부터 관악기, 타악기, 피아노까지 각 악기를 가까이 자세하게 보면서 오케스트라 구성 악기들과 친해질 수 있다.

이어 두 번째 순서로 발레 음악으로 친근한 작품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이 연주된다. 오케스트라를 위한 8



개의 모음곡이 환상적인 애니메이션과 함께 연주되며 어린이들을 상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또한 공연은 클래식 음악에 최적화된 3D 애니메이션과 대편성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연은 3일 오후 3시, 4일 오전 11시, 오후 3시, 5일 오후 3시 총 4차례 진행되며,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3개월부터 이상 입장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문화상품으로 전시의 감동 두배"

ACC재단, '길 위에 도자' 연계 상품 4종 개발·출시

"현대 도자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다양한 문화상품 만나 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최근 개막한 2024 ACC 아시아 네트워크 '길 위에 도자' 전시와 연계한 문화상품 4종을 개발,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개막한 전시 '길 위에 도자'는 아시아 외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현대 도자를 이주의 경험을 가진 작가 4명의 작품을 통해 조명하는 전시다.

ACC재단은 전시 작품의 조형성과 이미지, 특징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감과 물성을 가진 소재를 접목해 참여 작가별로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했다.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베트남·멕시코계 미국 도예가 린다 응우옌 로페즈 작가의 '금빛 돌이 박힌 미드나이트 허스키' 작품을 약 10cm 크기로 축소한 양초 상품을 비롯해 한국계 미국 도예가인 세 오 작가의 작품을 소



린다 응우옌 로페즈 작가 작품을 축소한 '양초 상품'

제로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도안이 변화하거나 입체감을 표현하는 인쇄물인 '렌티큘러' 업서와 우표 스티커 세트 상품을 만들었다.

역시 한국계 미국 도예가인 스티븐 영리 작가와는 '독수리구름양매병' 등 4개 작품을 활용해 재사용이 가능한 스티커 세트 상품을 제작했다.

이번 '길 위에 도자' 연계 상품은 3천 원에서 2만8천 원 사이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돼 있으며, ACC 문화상품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우리 지역 분양 소식

비싸고 불안하기만 한 아파트 가격! 임대가 답이다

영무예다음 현재 사전 청약 접수중 (특별혜택)

최고의 가치

10년 전세 아파트

1억7천대~ 영무예다음 더 퍼스트

페이스트국제학교
2026년초 개교

달빛내륙철도
호재

문의 전화 1533-8321

삶이 예술이 되다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로얄층 마감임박

총 1,466세대 분양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중!!

총 1,466세대 84㎡, 102㎡, 112㎡, 157㎡
(2블록 785세대 / 3블록 681세대)

1,466세대 (구)33평형, 계약금 중도금 전액 선착순
대단지 43평형 5% 무이자 동 호지정

대표 전화 1533-8316